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7월 2일(주일) 제1154호

2017 여름사역 시작



선교,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해외 54팀 813명 19개국, 국내 59팀 1,540명 40개 지역으로!
러브소나타 동경 참석 등 일본 선교 집중, 차세대 캠프 8월 6일까지

여름사역 시즌이 돌아왔다. '선교,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를 주제로 복음 들고 땅 끝으로 떠난다.

올 여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에는 성인공 동체 해외 54팀 813명, 19개국 32개 지역, 국내 59팀 1,540명 40개 지역, 대학청년부 2,928 해외 788명, 국내 2,140명(6월 30일 기준)이 참석한다. 차세대 여름사역은 '창조 탐험대'를 주제로 8월 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해외 아웃리치는 러브소나타 10주년을 기념하며 일본 선교에 집중한다. 성인공 동체, 대학청년부, 온사랑합창단, 서빙고 2

부 주사랑찬양단 등 1,779명이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간다. 러브소나타 동경 집회에 참석하고, 거리 전도, 차세대 캠프 등으로 일본 선교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예정이다. 그 다음 해외 아웃리치 지역으로는 남아시아가 62팀으로 가장 많고, 동아시아 59팀, 아프리카 5팀,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각 3팀, 중동 2팀, 유럽과 오세아니아 각 1팀 순이다.

국내 아웃리치는 전라도 29팀, 경기도 28팀, 강원도와 충청도 각 26팀, 경상도 24팀, 서울·인천 12팀, 제주도 11팀, 광주·대전·부

산 각 1팀이 간다. 주요 사역으로는 예배 섬김, 다문화가정사역, 지역전도, 노숙인사역, 어린이캠프, 마을잔치, 군교회 방문, 교회 시설 보수, 일손 돕기 등이다.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제(1일)부터 차세대 여름캠프도 시작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영아1부가 포문을 연 차세대 여름캠프는 8월 6일 서빙고 초등 1부, 소년 2부, 양재 유년 2부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CGNTV '블랙마운틴' ICVM 최고해외영화상 수상

저예산 다큐멘터리 부분도 은상

CGNTV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가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국제 기독교 미디어 컨퍼런스 'ICVM(International Christian Visual Media Association) 2017'에서 최고해외영화상(Gold Crown Award)과 5만 불 이하 저예산 다큐멘터리 부분 은상(Silver Crown Award)을 동시에 수상했다.

블랙마운틴은 조선 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다. 선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잊힌 영적 유산을 한국 교회와 나누고자 제작했다.

CGNTV 제작진은 내한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 생활하고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을 직접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의 감동적이고 생생한 사역이야기를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순종해 가난한 나라 조선을 기쁨으로 섬겼던 선교사들을 조명하면서 한국 교회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물했다.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김현준 기자

7월 16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7월 16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양제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성도들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상가나 도로변에 불법주차해 해서는 안 된다.

/ 김영선 기자

오늘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

오늘은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수원 온누리교회는 2003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창립된 캠퍼스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젊고 역동적인 교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하용조 목사님과 추억

8월 2일 '하용조 목사 추모 6주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를 찾습니다. josephphsh@naver.com 031-331-8182

특집_ 국내 아웃리치 여기로 가자!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어요?”

강원도 태백시 탄광촌 성광교회의 눈물 나는 사연



아웃리치 시즌이다. 본지에서는 올해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이웃들과 교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농어촌선교팀의 자문을 받아 도움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이웃들과 교회를 우선 선정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탄광촌에 있는 성광교회다. 눈물 나는 성도들과 예수 닮은 목회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석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1960년대 강원도 태백과 정선을 중심으로 탄광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물 좋고 산 좋던 강원도 오지가 삼시간에 발전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탄광촌 주민들은 그 시절을 “지나가던 개들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였다”고 추억한다. 물질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혼은 무척 가난했다. 전쟁터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곳이 바로 탄광이었다. 탄광촌 사람들은 석탄을 캐기 위해 날마다 목숨을 걸었다. 그 스트레스를 억지로 풀어내려고 소비적인 문화와 유흥문화가 발전했다. 미신이나 우상숭배 또한 횡행했다.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탄광촌 주민들의 불안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품고 돌보려고 노력했었다.

부의 상징이던 탄광촌이 지금은 옛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석탄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석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많던 탄광들이 문을 닫고, 주민들도 탄광촌을 떠났다. 15만 명이 넘던 강원도 태백시 인구가 지금은 4만 명으로 줄었다. 몇 안 남은 탄광을 지키는 광부들과 그 곳을 떠나도 살 방법이 마땅치 않은 늙은 광부들만 남았다. 탄광촌 곳곳에는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건물들만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성광교회 강내봉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자기마저 떠나면 누가 탄광촌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느냐며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프고 안타까운 성도들과 노(老) 목사 사모가 아르바이트해서 근근이 교회 운영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성광교회는 연탄 같은 교회다.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탄광촌에 남아 있는 이웃들에게는 성광교회는 천국이 따로 없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고 늘 술에 취해 사람대접 못 받는 알코올 중독자 노총각도 성광교회에 가면 가족과 이웃이 생긴다.

지난 25일 성광교회 주일 예배에는 어김없이 가장 소외된 이웃 5명이 참석했다. 예배당에 술 냄새와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강내봉 목사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성도들이 조금 독특하죠? 우리 교회에는 안타까운 성도들 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건강한 성도들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 버리지요.”

강내봉 목사는 20년째 태백시 장성동 성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강 목사가 처음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특수목회를 한 것은 아니다. 그가 성광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할 때는 이미 석탄산업 호황기가 끝나 있었고 도시는 죽어가고 있었다. 성광교회에는 시각장애인, 하반신마비 장애인, 연세 지긋한 할머니 성도 3명이 있었다. 그래도 부지런히 목회했더니 성도가 80명까지 늘었는데 한 성도가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머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 버렸다.

“그때 몸이 성한 성도들이 다 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만 남았어요. 교회 아니면 갈 곳



▲ 20년째 태백시 장성동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강내봉 목사, 최정희 사모.
▲ 교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강내봉 목사 부부와 주옥순 권사.

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한 가족같이 살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성도가 늘지 않았다. 어쩌다 주민들이 예배에 나왔다가도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이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늘 때가 있다. 돌봐줄 가족이 없고, 오갈 곳 없는 소외된 이웃들이 성광교회에 가면 사람대접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 둘 찾아올 때다. 그 중에는 술 먹고 동네에서 온갖 말썽을 부리는 형제들도 많았다.

“소위 문제아들 때문에 교도소에 면회도 가보고, 검사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도 하고 별짓을 다해봤어요. 아찔 때는 제 속이 다 뒤집어져요.”

강 목사는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고, 사고를 치면 사정사정해서 경찰서에서 꺼내오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비가 없으면 돈을 빌려다가 내줬다. 누가 보면 목회자인지 사회복지사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다. 겨울이면 언덕 아래까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바래다주다 같이 넘어지고 뒹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실 강 목사도 대접받고 배려 받아야 할 나이다. 올해로 딱 일흔이다. 그런 그가 성도들 앞에서는 늘 청춘이고 든든한 보호자다.

“저는 괜찮아요. 이 사람들 제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요.”

10년 전부터는 예배당을 쪼개 방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성도 3명과 함께 살았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자녀들이 모셔가고, 지금은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주옥순 권사만 남았다. 주 권사는 성광교회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나이 일흔의 목회자가 하반신마비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모라도 곁에 있으면 좋을 텐데 강 목사와 아내 최정희 사모는 떨어져 살고 있다. 교회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최정희 사모가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교단에서는 미자립교회 목

회자에게 적게나마 지원금을 주는데 성광교회는 현금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없다.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에게 생활비라도 조금씩 나눠주려고 최정희 사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원룸 관리를 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성광교회로 온다. 이렇게 고생해서 번 몇 푼 안 되는 돈을 성도들을 돌보는데 대부분 쓴다. 후원자라도 있으면 숨통이 트이겠는데 후원자라고는 강 목사의 세 아들 뿐이다.

시골벽적인 예배 한번 드러봤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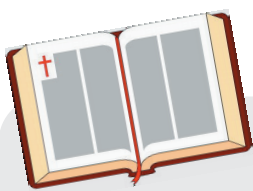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강 목사 부부의 소망은 참 소박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성광교회 문 안 닫고 성도들 돌보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또 하나의 소망은 시골벽적인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도 아웃리치 좀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시골벽적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벽화도 그려주고, 연탄도 좀 날라주고, 전도까지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젊은이들 웃음소리를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성광교회까지 승용차로 3시간 걸린다. 먼 거리 때문인지 성광교회에서 아웃리치를 받아본 적이 손에 꼽힌다고 한다. 아직 국내 아웃리치 장소를 정하지 못한 공동체가 있다면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성광교회로 아웃리치를 가면 어떨까. 소외된 이웃들과 강내봉 목사 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성광교회 아웃리치에서는 낡아서 철이 떨어지는 벽화를 새로 그리고, 강 목사와 성도들이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게 연탄을 날라주고, 이웃 주민 전도 등의 사역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재정적인 후원도 절실하다.

문의: 양재 농어촌선교회 010-2112-6685
성광교회 강내봉 목사 010-2301-0203
주소: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협심길 7-14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기 불편할 정도로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읽고 듣기 좋은 명언들이 나열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저주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에게도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주신 준엄한 말씀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 용서 등의 단어들만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허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불쾌한 인물이다. 공공연하게 질투하고, 음흉하고, 부당하고, 용서를 모르는 권위적 인물인데다 복수심이 강하고 피에 굶주린 종족 말살자이며, 여자와 동성애를 혐오하며, 인종차별주의자며, 영아를 살해하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살해하는 인물이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성경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그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들의 저주와 다릅니다. 인간들의 저주는 자기 자신도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복수심과 질투심, 그리고 과장된 미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철저하게 악을 미워하시는 저주입니다. 선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

선이란 악이 무슨 일을 하든지 유약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은 악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행동입니다. 만약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없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듯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듯 우리도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도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할수록 선한 것입니다. 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은 우주적인 반역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주적인 싸움터입니다.

아마도 악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통치자라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롬 1:18).

이 세상에 가득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하여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은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신약에서는 심판을 구약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고백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다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협도 가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으며, 심판도 하지 않는 신을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범신론(pantheism)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지만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만물에 내재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인간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만 쓰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에게 도움만 주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심판 받아야 할 신이 아니라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진정한 신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되, 만물을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불순종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불순종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저주로 바꾸면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네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네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15절).

지난주에 살펴 본 복들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세 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복에 관한 구절은 14구절인데 저주에 관한 말씀은 54구절이나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순종할 가능성보다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주로 나아가는 삶에는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저주의 삶으로 인도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은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간구가 있지만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향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름끼치는 저주를 퍼붓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들은 축복의 단락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경제, 사회, 나라, 민족, 생물들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는 광범위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惡)’

“이 모든 저주들이 네게 닥칠 것이다. 그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네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네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45절).

결코 피할 수 없고, 눈 감을 수 없으며,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경고와 저주를 가져오는 불순종의 다양한 원인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네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20절).

악이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악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가 변창하는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47절).

(13면에 계속)

기획

여성문제와 교회의 역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차별의 조건이 아니다

동등하고,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의지하는 존재 인식 필요
여성 위한 맞춤 프로그램 개발 등 교회가 제 역할 해야

“여성의 문제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오래갈 문제이다”

현정 사상 최초 여성이자 비(非)고시 출신 외교부 수장으로 임명된 강경화 장관이 지난 2012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 때 했던 말이다. 그만큼 여성 문제는 역사도 깊고 골도 깊다. 요즘 여성평등, 여성혐오, 여권신장 등으로 대변되는 여성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여성문제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소외와 억압,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차별과 불평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 대두된 여성문제는 여성혐오, 성차별로 인한 교육과 임금(賃金)의 불공평, 경력단절과 유리천장, 페미니즘운동 등이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여성혐오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경 강남역 인근 상가 남여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려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처참히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여성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경력단절 및 유리천장

사회복지사인 A자매(30세, 강동 온누리교회)는 둘째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마다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파트타임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다.

“남자들한테는 아기 양육은 어찌고 일하러 나왔냐고 안하잖아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조차도 면접볼 때 성차별적 질문을 하고, 육아휴직 쓰는 것도 엄청 눈치 보여 못 쓰는 선배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 근무하는 B자매(40세, 브릿지33+공동체)는 유리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1급 호텔 여성 총지배인이 나온 것이 2011년이었어요. 여권 신장이라고들 하지만 세계적인 호텔에서조차 여성 임

원이 탄생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된 거죠. 프랑스 본사의 평등 문화와 한국 경영진들의 열린 마인드가 아니었으면 여성 총지배인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회사원 C자매(39세, 양재 온누리교회)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끊어지지 않고,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여성들을 보면 결국 주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드라마에도 여성혐오와 성차별 코드가 가득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서에 남녀차별이 남아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 드라마에 등장한 여성차별 대사들을 모아봤다.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디 하늘같은 남편한테 애를 맡기냐.”

“길 때 안 길 때 다껴 여자가.”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여자를 만나갖고, 아휴 급죽같은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와 같이 법적, 형식적으로 남녀평등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남녀차별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직장에서의 성차별(유리천장, 경력단절 등)이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이 시대 여성들이 지나치게 권리를 주장한다고 지적해서는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상호보완적이며, 의지하는 관계**

성경에도 성차별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고전 11:8-9).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 또는 조수’ 혹은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돕는 자’라고 해석한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man)가 아니라 ‘사람’(human)을 지으셨다(창 2:7).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는 말씀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EZER’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20번(창 2:18, 창 2:20, 출 18:4, 신 33:7, 신 33:26, 신 33:29, 시 20:2, 시 33:20, 시 70:5, 시 115:9, 시 115:10, 시 115:11, 시 121:1, 시 121:2, 시 124:8, 시 146:6, 사 30:5, 겔 12:14, 단 11:34, 호 13:9) 나온다.

“우리의 도움(EZER)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시 124:8).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EZER)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다”(신 33:7).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EZER) 나를 대적함이니라”(호 13:9).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을 말할 때 ‘EZER’라는 단어를 쓴다. 이사야와 에스겔, 다니엘에서는 도움(EZER)이 없는 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구약이 말하는 ‘돕는 이’는 종속과 조수, 보조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준 것 같이 ‘적극적이고 필수적으로 뛰어

난 도움’을 뜻한다.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존재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도움 같이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동역자를 의미한다.

예수님도 여자들을 하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남성 제자만 둔 게 아니라 여성 제자도 두셨다. 이는 거부장적이고 폐쇄적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전무한 일이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고 적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같이 밥도 안 먹는 사이였다는 것과 인구 3분의 2가 종이었던 주종관계 사회였던 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유별한 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위대하고 선진적인 선언이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엡 5:22-33).

결혼식 때 신랑신부에게 가장 많이 건네는 말씀이다. 마치 부부 관계가 주종관계인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바울은 바로 앞 구절(엡 5:21)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다. 여자는 복종만 하고 남자는 사랑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남편은 특히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가 절대 아니다. 서로 동등하고, 함께 짐을 지는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의지하는 관계이다.

합당한 사람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여성 불평등 지표〉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 평가

경제참여와 기회 124위

교육성취도 103위

건강과 생존 74위

정치 권한 부여 9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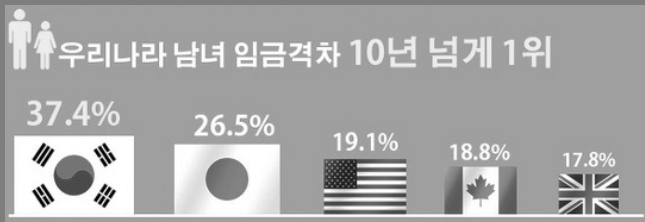
전체 117위(총 142개국)

*출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세계 성별격차지수

〈OECD 주요국 남녀 임금격차 순위〉

(대상: OECD 11개 회원국 / 기준 2012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



〈여성문제 극복을 위하여〉

남성의 노력

- 잘못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 “여자가 말야”, “여자들은” 등 여성을 수동적, 종속적으로 판단하는 언어와 의식 지양

여성의 노력

- 여성들 스스로가 능동적, 주체적인 역할 찾기
- “이런 건 남자가 해야 돼”, “남자가 앞장서야 일이 잘 되지” 등 소극적, 의존적 자세에서 탈피하기

교회의 노력

- 미혼 직장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여성 리더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소개
- 여성인권, 여성문제 관련 세미나 개최
- 여성들을 위한 공동체 만들기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은 여성 지도자가 등장해 정치·군사적으로 활약했고, 교회의 공적 직분을 맡아 쓰임 받기도 했다. 남성 위주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셨다.

대표적인 이가 드보라 사사이다. 드보라는 혼돈의 사사시대에 다불산에서 가나안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성 선지자다. 그녀는 모세와 비견될 정도의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국모(國母)로 추앙받은 인물이었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평등을 당하던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가히 획기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의 침입을 막았다. 가나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군대장관 바락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주저하는 바락을 도와 직접 전쟁에도 참여했다. 드보라의 용기는 남자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지혜와 신앙을 겸비한 정치가였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력이 민족을 구하고, 40년이나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다.

요시아 종교개혁을 이끈 여성 예언자 홀다도 빼놓을 수 없다. 구약에서 다윗 이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아다. 이 두 왕이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불살라 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대 왕들의 신당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된 제사장과 바알과 일월성신에게 제사를 지낸 사 람들을 추방했다. 성전 창기의 집도 폐쇄하고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도 금지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아 왕을 두고 성경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25)며 극찬했다. 바로 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결

정적인 영향을 준 이가 여성 선지자 홀다였다.

사반 서기관 등 5명이 요시아 왕의 지시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러 갔다가 율법책 한 권을 발견했다. 사반은 이 책을 요시아 왕에게 가지고 와서 큰소리로 읽었다. 왕은 이 율법책의 뜻을 이해하고 애통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이 책에 적힌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지 힐기야 대제사장 등 5명의 특사를 선발해 알아보도록 명령했다.

이들 5명은 곧바로 홀다에게 찾아갔다. 여기서 홀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했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매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대하 34:23-25).

홀다는 유다 백성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함으로써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단초를 놓은 것이다. 당시 예언자 예레미야나 스바냐 등도 있었지만 요시아 왕은 여자인 홀다에게 찾아가 두루마리를 해석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도 역사를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신약에도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한다.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로부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막 14:9)는 칭송을 받은 여인이 있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갈릴리 여인들도 있었다. 예수님 수난 직전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쳐버렸을 때

예수를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은 이들도 여인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선지자, 여성 집사, 가정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한 이들 중에도 여성들이 많았다. 신약의 첫 번째 여성 선지자 안나에 의해 예수 탄생 소식이 백성들에게 처음 선포됐고(눅 2:36-38), 초대교회 전도자 빌립(행 21:8)의 네 딸은 모두 예언자였다. 사도로 활동한 여인들도 있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친척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해달라고 당부했다(롬 16:7).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유니아는 단순한 사도가 아니라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로 활동한 여인이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었다(롬 16:7).

초대교회도 여인들에 의해 생겼다. 집을 가졌거나 경제적 부를 누렸던 여인들에 의해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기 시작했다. 브리스가는 가정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교사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뫼비라는 여인은 겐그리아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전파는 결코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

기도가 답이고, 교회가 그 주체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57.6%로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2000년 37.4%에서 16년 만에 20.2%포인트 늘었다. 7급 공무원 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같은 기간 16.6%에서 41.7%로 급증했다. 외무고시(5급) 합격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70.7%였고, 행정고시(5급)와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각각 41.4%와 36.7%에 달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2000년 31.5%였는데 2015년에는 44.6%로 높아졌다. 이처럼 여성들의 공직사

회 진출 증가는 단순한 여풍 현상이 아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남성과 여성의 공조를 통해 일구어져 왔다. 사회 구성원의 절반은 여성이다.

교회는 여초현상(여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구성원의 90% 가까이가 여성인 교회도 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여성들의 권리가 확대받아서 안 되고, 확대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교회가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취재 중에 만난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교회에 미혼 직장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 중에서도 기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교회가 본(本)이 되는 여성 리더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여성은 “결국 여성문제는 인식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어요. 교회보다 인식개선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분명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차별의 조건이 아니다. 능력과 역할에서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생각과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여성들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만이 답이고, 교회가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매월 마리아행전 기도모임	
일시: 매월 마지막 주(수)오전 10시 30분	장소: 각 캠퍼스 본당
주중 마리아행전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수) 오후 1시 드림홀	양재: 매주(수) 오후 1시 화평홀
부천: 매주(수) 오후 12시 40분 믿음홀	강동: 매주(수) 오후 12시 30분 두란노홀
수원: 매주(화) 오전 10시 201호	

먼저 배우고, 성장하고, 본을 본이고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습공동체 ‘장로아카데미’

“장로아카데미는 학습공동체입니다.”

이장로 장로(여의도공동체)는 장로아카데미의 기능과 역할을 한마디로 “장로들이 먼저 배우고, 성장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섬김 리더십 개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3일 벌써 장로아카데미 3기가 종강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장로 108명이 수료했다. 장로들이 술선수범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본을 보이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돕고 있는 장로아카데미를 소개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지난 6월 13일 장로아카데미 3기 수료식.

조항진 장로는 지난해 장로 아카데미 1기 과정을 수료했다. 무엇보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감동이 새롭게 밀려온 것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장로아카데미 수료 이후 “성경 읽는 것이 더욱 재미있어졌다”고 고백했다.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장로아카데미 2기와 3기에도 성경통독을 하려고 참석했다. 조 장로는 장로아카데미 덕분에 1년 반 만에 성경을 세 번이나 통독했다. 비단 조 장로뿐만이 아니다. 장로아카데미 3기를 수료한 김인화 장로는 성경통독을 하면서 장로장립 받았을 때의 뜨거운 신앙을 회복했다고 간증했다.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한 장로 108명이 전원 성경통독을 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 뿐이다. 서로가 서로를 독려한 것이 참가자 전원이 성경통독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하나 되어 섬김 리더십의 본을 보이는 온누리교회 장로들답다.

영적 성숙과 섬김 리더십 개발

장로아카데미의 목표는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섬김 리더십 개발이다. 장로아카데미는 세 가지 비전을 품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배우고, 둘째 배움을 통해 영적 성숙을 돕고, 셋째 교회와 일터에 필요한 섬김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그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장로아카데미는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였다. 장립된 지 7년 이상 된 장로들이 대상이다. 장로아카데미에서는 크게 교회, 개인 영성과 리더십, 사역과 국가사회에 대해 배운다.

‘교회’에서는 한국교회사,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배운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의 종교개혁과 한국 개신교의 성경 번역에 대해 배웠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말씀에서 시작되었듯 한국 교회의 초석도

말씀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장로아카데미에서 매 학기 성경1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영성수련회도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과 선교 철학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개인 영성과 리더십’에서는 일상생활 신학과 영성, 관계와 소통,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을 배운다. 예수님의 섬김이 표본이다. 가족, 성도,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건강하게 관계 맺는지를 배운다.

‘사역’에서는 온누리교회 핵심 사역들을 살펴본다. Acts29비전과 온누리 선교, 사회선교와 공회사역, 가정사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장로가 각 사역과 가정에서 어떠한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나눈다.

‘국가사회’에서는 다음세대 이해와 교회의 책임,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고령사회와 시니어사역에 대해 배운다. 장로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독려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장로아카데미의 꽃은 토론과 조별 발표다. 토론 시간에 배운 것과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 사역을 나눈다. 장로아카데미를 먼저 수료한 장로가 사역을 나누기도 한다. 서로가 서로의 삶과 사역을 보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배우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장로아카데미 2기를 수료한 송영범 장로는 이렇게 고백했다. “장로아카데미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됐어요. 평소에 참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게 되었어요.”

장로아카데미 4기 개강
날짜: 8월 29일

사역칼럼

리더(Leader)는 읽는 사람(Reader)이다

“학무지경(學無止境)”

배움은 끝이 없다는 말이다. 하비 율먼은 “스무 살에 중단하던 일흔 살에 중단하던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은 노인이 된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젊은이로 남을 뿐 아니라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다. 그만큼 배움이 중요하다.

한국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장로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다 장로가 되면 배우는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오랜 시간 사역했지만 영적 고갈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양식을 계속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섬기는 리더십도 영적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정체되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세상이 말하는 군림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장로가 군림하는 리더가 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리더(Leader)는 읽는 사람(Reader)이다. 읽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뜻

한다. 무릇 무언가를 이끌고자(Leading)하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Reading)하고, 배워야 한다. 故 하용조 목사님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배움과 가르침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은 늘 배우고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한다. 이것이 작년에 장로아카데미를 발족한 이유다. 장로아카데미는 한마디로 학습공동체다. 그 이유가 있다.

첫째, 장로님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배우기를 원했다. 교육과 학습은 다르다. 교육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학습은 학생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둘째,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다. 공동체는 몸 안에 있는 여러 기관과 같다. 몸의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학습공동체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로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학습공동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배우고, 영적 성숙을 돕는 것이다.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엡 4:13-15)을 의미한다. 또한 섬김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을 뜻한다. 교회 혹은 일터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막 10:4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다. 예수님은 철저

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궁극적으로 장로아카데미를 통해 장로님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렵고 캄캄한 때일수록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되어야 한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했고,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대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작은 예수 같은 장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장로님들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세워주기를 소망한다.



이장로 장로
(장로아카데미 대표)

“혹시 회사에 신우회 있습니까?”

직장에 활력 불어넣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지난달 21일 SC제일은행 기독교교회의 ‘문화선교의 밤’ 행사.

“혹시 회사에 신우회 있습니까?”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직장(조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 김정숙 목사(병원사역 담당), 박공 장로(신용산공동체), 김명현 장로(분당A공동체), 권영로 집사(서초C공동체)가 주인공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우회 활동을 강력하게 독려했다. 회사에 신우회가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들라고 권면했다. 회사에 신우회가 있으면 직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불모지 같은 병원에서 신우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김정숙 목사(병원사역 담당)는 신우회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병원선교에 큰 힘이 된다고 고백했다. 김 목사는 서울삼성병원 원목이다. 그녀가 처음 삼성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전도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사립병원이다 보니 원목에게 허용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병실 출입은 물론이고 환자를 만나 면담하는 것도 안됐었어요. 병원이 선교지라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김 목사에게 그 어떤 활동도 허용되지 않았을 당시 삼성병원 신우회 ‘한가족의료봉사회’가 발족했다. 그때가 1994년이었다. 뜻을 함께 하는 크리스천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들은 병원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간절한 기도가 조금씩 응답되었다. 조금씩 병원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종교실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부녀를 만났어요. 그들이 제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만난 환자였어요. 방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일대일 제자양육까지 연결시켜주었어요.”

이것이 김 목사가 병원선교에 봉사자를 참여시킨 시발점이었다. 조금씩 병원 사람들도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봉사자들을 만난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2001년, 삼성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故 하용조 목사가 간암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내원했을 때 성탄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공식적인 첫 예배였다. 지금은 절기별 예배를 연중행사로 드리고 있다. 모든 것이 삼성병원 신우회 ‘한가족의료봉사회’의 기도응답이다. 한가족의료봉사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각 부서 기도제목과 국내외 의료봉사 후기를 나눈다. 끈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병원선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가족의료봉사회 회원인 간호사들에게 전화가 자주 와요. 수술 혹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불모지와 같았던 이곳이 이제는 전도의 황금어장이 되었어요.”

개인과 회사의 유익을 동시에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조직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또 있다. 서울택시운송사에서 20년 동안 ‘기운선교회’를 이끌어 온 박공 장로(신용산공동체)다. 박 장로도 신우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직장에서 개인의 신앙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지만 크리스천들이 많이 모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만큼 쉬워져요.”

박 장로는 노무담당 상무이사로 일하면서 신

우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노사문제를 다루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온누리교회 직장선교위원회 팀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직접 직장 선교사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박 장로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운선교회를 창립했다. 20년 동안 매월 한 번씩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물론 위기도 있었다. 신우회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박 장로는 어떻게 하면 회사와 개인에게 유익한 신우회가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했다. 그 해답은 신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의 유익을 함께 추구해야겠다고요.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신우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박 장로는 기운선교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업무토론을 했다. 회사에 유익한 정보들을 조사해서 제공하기도 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의 유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박 장로의 선택은 신의 한 수였다. 동료들이 하나 되는 문화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회사 수련회도 기운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고 진행했다.

“크리스천들이 합심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회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회사를 위하여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신우회 덕분에 직장생활이 즐겁다

신우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신우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권영로 집사(서초C공동체)는 재작년 말부터 ‘SC제일은행 기독교교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신우회 회원들과 함께 영화 ‘서서

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했다.

“평소 신우회 예배에 10명 정도 모이는데 그 날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85명이 모였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권 집사는 신우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SC제일은행 기독교교회는 권 집사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다. 등록된 회원만 140명이다. 그렇지만 한번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직원들도 있었다. SC제일은행 기독교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흔들리고 있을 무렵 권 집사가 다시 불을 지폈다.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다른 은행 신우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료를 구하고 직접 참여해 보면서 신우회의 방향을 재설정해 나갔어요.”

지금 SC제일은행 기독교교회는 매주 수요일 성경공부를 하고, 조찬기도회와 월례예배를 드리고 있다. 권 집사는 SC제일은행 기독교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표현한다.

“직장인들은 일주일의 70% 이상을 직장에 머물잖아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천들이 직장생활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그래서 신우회가 중요해요. 서로 권면하고 도전 받으면서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개인의 신앙도 살아나게 하거든요.”

대학교에도 신우회가 있다. 김명현 장로(분당A공동체)가 몸담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기독교수회’가 바로 그것이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성경공부와 캠퍼스 연합예배를 격주로 드리고 있다. 올해 5월 개최한 찬양집회에는 무려 4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참석했다. 시작부터 거창하지는 않았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기독교수회는 김 장로를 포함한 교수 3명이 1989년 창립했다. 매주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을 진행했는데 위기가 찾아왔다. 신우회가 정체성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때 방선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비로소 신우회를 왜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자 동료들과 상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미워했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가 좋아졌다. 모두가 귀한 동역자요,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신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신우회 활동을 하면 직장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우회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위한 Tip

1. 비슷한 직종의 신우회에 참석하라.
2. 소수여도 일단 모여라.
3. 일과 영성에 관련된 책을 읽어라.

신우회를 위한 책 추천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윌리엄 E의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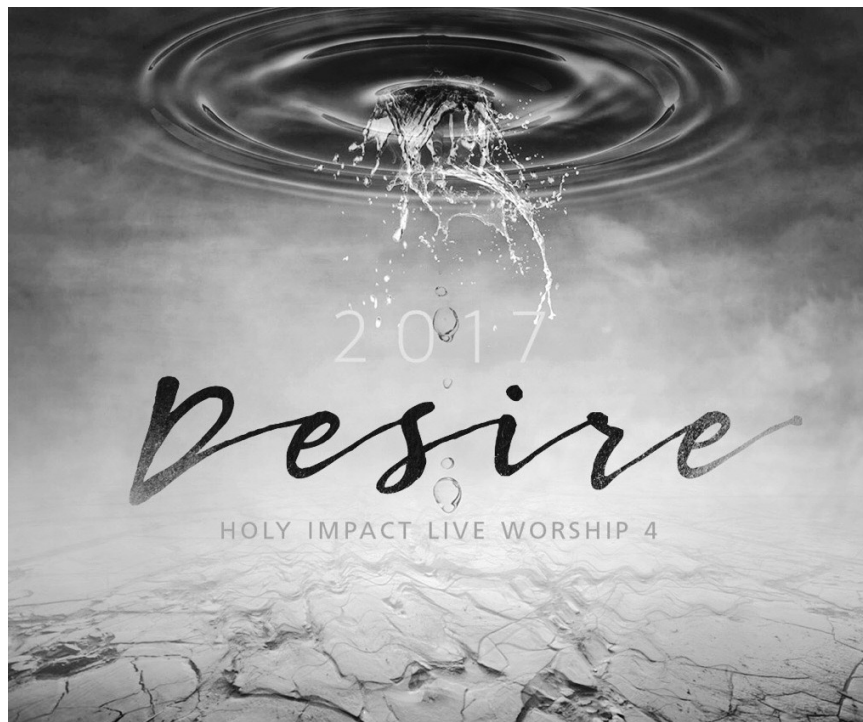
세바스찬 트레거, 그렉 길버트의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홀리 임팩트 4집 앨범 발매

Desire, 진실한 예배자로



▲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원유경 목사.



▲ 홀리 임팩트 4집 앨범.

홀리 임팩트 4집 타이틀은 ‘DESIRE’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들의 갈망하는 마음을 고백으로 담았다. 이번 음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묵상했을 때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긴급한 부르심이다. 이 시대의 거룩한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또한 부르신다는 것이었다.

한 시대를 주도했던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자들의 시선과 목마른 심령을 통해 일어났다.

부흥은 갈망하는 예배의 열매이다.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진실한 예배자들을 소집하시는 하나님의 호출이다.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진 예배자들을 통해 이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2017년 홀리 임팩트 화요 성령집회 라이브 위십은 바로 그 하나님 얼굴을 향한 예배자의 뜨거운 갈망을 담았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데 많은 힘을 쓰지 말라.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라”고 말했다. 갈망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바다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 방향하게 된다. 인생의 목적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길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년 시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것, 광대하고 끝없는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갈망을 배운다면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 갈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지혜와 전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번 음반을 통해 각 개인에게는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갈망하는 예배자들의 고백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동안 1~4집까지 홀리 임팩트 음반에 실렸던 자작곡들은 대부분 개인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곡들이다. 단 한 번도 음악이 곡의 완성을 주도하지 않았다. 언제나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자작곡의 진짜 제작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분의 일하심은 때를 따라 다양하고 다채로웠다. 개인의 역사 안에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고백이 달랐고, 그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 하나의 창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예배적 갈망과 내가 올려드리기 원했던 내 깊은 중심의 영적 필요들이 서로 만나 한 곡 한 곡이 완성된 것이다. 음악교육 경험이 전무하지만 순전히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감수성이 주가 되어서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신비로운 과정인 듯하다. 그렇기에 더욱이 모든 자작곡의 진짜 제작자는 성령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 원유경 목사(SNS공동체 담당)

두란노 신간

좋은 습관이 좋은 믿음을 만든다



《뿌리 깊은 신앙》

유재필 저 | 두란노 | 13,000원

누구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습관이 주는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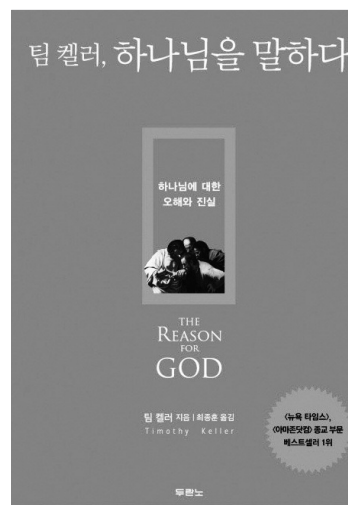
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습관이 좋은 믿음을 만들어준다.

《뿌리 깊은 신앙》의 저자 유재필 목사는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할수록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필 목사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책에서는 3가지 부분의 15가지 신앙습관을 소개한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 뿌리 신앙(은혜, 믿음, 충성, 사랑, 말씀), 인생 풍파를 이기는 바리새의 신앙(감사, 자유함, 연단, 마음, 불드심), 좋은 열매를 거두는 알곡 신앙(성장, 축복, 선택, 성령, 헌신)이 그것이다.

“성경에는 최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최선은 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최선이 아닌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있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저 | 두란노 | 18,000원

500년 전 로마의 가톨릭교회는 비성경적인 행동을 자행하면서 타락하고 말았다. 이에 마틴 루터가 교회개혁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의 성안교회 문에 내걸며 돌이킬

것을 촉구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는 다원주의가 강해지면서 진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인구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걸까? 이 책의 저자 팀 켈러는 “하나님은 진짜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일곱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변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일곱 가지 진실도 말해준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팀 켈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복음은 다른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지어낸 감동적인 사연이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음을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특집_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1. 18세기 1차대각성운동 2. 19세기 2차대각성운동 3. 20세기 아주사대부흥운동 4. 평양대부흥운동

2차대각성운동 이후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돌이키면 살아난 역사적 증거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의 역사다. 미국은 18세기 1차대각성운동,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2차대각성운동, 20세기 초 아주사대부흥운동을 계기로 종교적, 국가적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다. 역사신학자 조현진 교수가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돌이키면 살아난 역사적 사실을 풀어낸 글을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조현진 교수
(한국성서대학교
역사신학)

18세기 초반 일어났던 1차대각성운동 이후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을 탄생시킨 영적부흥운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미국인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서부 개척 등의 현안들로 인해 세속적인 문제에 빠져들었다. 특히 계몽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기독교에도 합리주의가 들어와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안 신앙과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를 부인하는 이신론(Deism)이 일어났다. 정통적인 기독교는 점차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 정도로 생각되었다. 리먼 비처가 “청교도 조상들에 의해 세워진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탄할 정도였다.

美 동부와 서부의 각성운동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2차대각성운동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이 운동은 미국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각기 다른 양태로 진행되었다. 동부의 각성운동은 대학을 중심으로, 서부의 각성운동은 개척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동부 지역에서는 1787년 햄튼-시드니대학과 워싱턴대학의 학생들에게서 부흥이 일어나 30~40명 정도의 헌신된 학생들이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예일대학에서는 티모시 드와이트가 이끌었다. 그는 1차대각성운동의 주역이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로 1795년 예일대 총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세속적인 이신론 사상에 물들어 있던 학생들을 보고 성경에 기반한 논쟁을 이끌었다.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는 설교를 4년 주기로 계획해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학생들이었지만 점차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1802년 부흥의 물결이 예일대 캠퍼스를 휩쓸었다. 당시 225명의 재학생들 중에서 약 3분의 1 가량의 학생들이 회심을 체험했으며, 이들은 후에 부흥운동의 주역들로 사용되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는 뉴저지대학(프린스턴대학의 전신), 다트머스, 윌리엄스대학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서부 지역의 각성운동은 제임스 맥그레디 목사가 시작했던 케인릿지 부흥이 대표적이다. 당시 새로운 땅의 개척을 위해 외딴 지역에 흩어져 살던 개척민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해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일을 기뻐하며 포장마차를 타고 집회장소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먼저 야영

할 캠프를 치고 중앙에 강단을 세우고 집회를 가졌다. 당시 부흥회는 개척민들에게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일종의 축제요, 잔치였다. 이러한 캠프집회는 주중에 시작해 4~5일 동안 지속되었고 주일에는 축제 형식의 특별집회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01년 8월 케인릿지에서 열린 부흥회는 50마일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1만 명으로 시작해 많게는 2만5천 명까지 모여들었다. 당시 케인릿지가 속한 켄터키 주의 가장 큰 도시였던 렉싱턴의 총인구가 겨우 1,79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한 곳에서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여러 목회자들이 교파를 떠나 연합사역을 통해 야영지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임시 강단을 세우고 각기 청중을 모아 동시다발적으로 설교를 진행했다. 목

조지 핏필드였다면, 2차대각성운동의 주역은 근대부흥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찰스 피니’였다. 뉴욕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습훈련을 받던 피니는 1821년 10월 몇 시간에 걸친 깊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성령께서 내 몸과 영혼을 관통하여 임재하셨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총만해서 울부짖었다.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부르짖었다.”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을 한 다음날 아침 출근한 그에게 10시로 예정된 재판 소식을 전하자 피니가 답변하기를 “집사님, 저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소송을 맡게 되었기에 집사님의 소송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피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송사를 맡은 변호사가 되었음을 고백했던 것이다. 피니는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뛰어난 부흥사적 재능을 드러냈다.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력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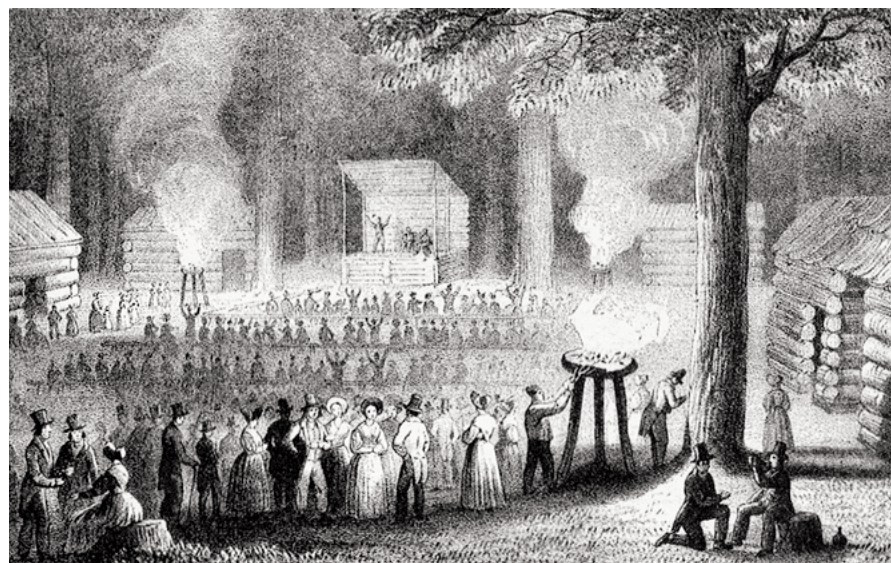
기도를 받으며, 영적 긴장을 유지시켜 회심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로운 제국(Righteous Empire)으로

2차대각성운동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1차대각성운동이 이민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다면, 2차대각성운동은 미국을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의로운 제국’(Righteous Empire)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개인적 구원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확산돼 기독교 국가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피니는 진정한 회심이란 선행과 함께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그 진정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장애인, 정신문제를 가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여러 특별구호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설립했다. 182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1인당 음주량이 현재보다 4배나 높을 정도로 음주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영적부흥의 은혜를 체험한 기독교인들이 금주(禁酒)를 권장하면서 음주율(1830~1845년)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당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노예폐지론이었다. 노예제도 폐지는 신생국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희생이 따르는 문제였다. 하지만 피니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노예제도는 죄악이며 악습이기에 피 흘리는 노예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오벌린대학의 총장이 된 피니는 흑인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의 주장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의 부흥회에서 회심한 자들이 함께 노예폐지론자들이 되었다. 이외에도 기독교인들은 많은 기독교 대학들과 신학교를 세웠다. 야만이나 무지가 자신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2세대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꾼 양성에 매진했다.

선교활동도 활성화되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다. 선교의 최우선 대상은 개척을 위해 희생당했던 인디언들이었다. 그들을 위해 국내선교에 힘쓰는 이들이 배출됐다. 대표적인 이가 사무엘 밀즈다. 밀즈와 동료 대학생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건조터미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함께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다. 이 기도운동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주요 선교기관들이 설립되게 되었다. 사무엘 밀즈가 시작한 ‘건조터미 기도회’가 미국이 세계선교의 센터가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2차대각성운동은 미국이 진정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켄터키 주에서 열린 최초의 캠프집회.

회자들의 열정은 캠프집회의 많은 이들이 회심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다.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었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성령의 역사는 이후 2년 간 미국 남부 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켄터키에서 시작한 영적부흥이 테네시, 오하이오, 조지아, 남부 캐롤라이나로 확산된 것이다. 지역적 제약을 받지 않고 활발하게 말씀을 전하는 순회설교자들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 이때 활발한 순회설교를 통해 침례교와 감리교가 미국에서 약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차대각성운동의 주역 ‘찰스 피니’

1차대각성운동의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도전적인 설교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 1831년 뉴욕 주 로체스터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피니는 부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부흥사가 기도만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회심을 책임져야 하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옥도로 만드는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부흥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흥과 회심이 일도록 새로운 수단들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구도자석’(anxious bench)이었다. 구도자석은 설교단을 마주보고 회중의 맨 앞자리에 구별된 좌석으로 죄 문제로 인해 구원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죄인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구도자들을 위해 마련된 좌석이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예배시간 내내 설교에 집중하면서 말씀과 훈계를 직접 듣고, 회중들의 중보



지난해 11월 열린 러브소나타 오사카.

러브소나타 동경 참가자 교육 실시

7월 6일 서빙고 비전홀, 14일 양재 기쁨홀

러브소나타 동경 참가자 교육이 실시된다. 오는 6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비전홀, 14일(금) 오후 7시 30분 양재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6일 참가자 교육에는 일반A팀, 일반C팀, 장로사관학교, 일산, 2부 주사랑, S브릿지, 양천, 영등포구로, 부천, 관악금천, 이촌, 남양주, 중종로, 서빙고JDS(주간/저녁), CH630, Pole2, 요셉, 길, W, SNS, 하늘공동체가, 14일 참가자 교육에는 일반B팀, 양재, 서초B, 분당A, 안양평촌, 산본안산, 강남C, 과천의왕, 송파, 강동, 주기쁨, 브릿지33+, 북누리, 남누리, 대전, 양지, 양재JDS(주간/저녁), 수원JDS, 여호수아, 허브, J4U, 갈렙공동체가 참석하면 된다.

러브소나타 참가자 교육에서는 봉

사 내용 및 주의사항, 행사장과 현지 교회 정보 및 일본교회 현황, 중보기도와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과 축복송 등을 배운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와 동경 실행위원회는 막바지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28일 서빙고 온누리

교회 수요목양예배를 ‘러브소나타 발대예배’로 드렸고, 동경 현지에서는 지난 29일 제1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137개 협력교회가 모였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동경 기 · 도 · 제 · 목

- 7월 3일(월) 28번째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 7월 4일(화) 일본 교회, 실행위원들에게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함 부여하도록
- 7월 5일(수)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 7월 6일(목) 이재훈 목사님과 강사진, 출연자들이 성령 충만 하도록
- 7월 7일(금) 섬기는 스태프들이 물 떠온 하인들이 경험한 감격을 누리기를
- 7월 8일(토) 아웃리치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누리기를
- 7월 9일(주일) 환경과 교통, 날씨, 음식, 프로그램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NGO 더멋진세상 생명 살리기 캠페인

모기장 1,133장, 마마키트 95개, 정수기 85개 전달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4월 실시한 어린이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후원 받은 모기장 1,133장, 마마키트 95개를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정수기 85개는 여름 아웃리치팀을 통해 아프리카 동부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

이다.

모기장은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 마을 주민들에게 2828장을 배포했고, 스리랑카 남서부 홍수피해 지역 산모 200명에게 마마키트를 선물했다.

/ 김영선 기자

남양주, 7월 5일 특별집회 개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오는 7월 5일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특별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특별집회에서는 도육한 목

사(양지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TIM 본부장)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31-565-9686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본지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각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간증, 아웃리치 현장을 담은 생생한 사진, 후기를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본지에 게재해준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장, 글자크기는 10포인트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96

양재 금요철야예배 ‘한 여름 밤의 꿈’

7월 7일~8월 25일까지 사랑홀 오후 11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양재 금요철야예배를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을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7월 7일 ‘보지 못하는 자의 꿈, 갈망’, 14일 ‘피곤한 자의 꿈, 비상’, 21일 ‘외로운 자의 꿈, 존중’, 28일 ‘고독한 자의 꿈, 동행’, 8월 4일 ‘낙심한 자의 꿈, 회복’, 8월 11일 ‘어긋난 자의 꿈, 회심’, 18일 ‘빈 배인 자의

꿈, 비전’, 25일 ‘두려운 자의 꿈, 사랑’을 주제로 이기진 목사님과 김승훈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기진 목사는 “무기력과 실패에 사로잡힌 개인과 이 시대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며 “양재 금요철야예배를 통해 한여름 밤 꿈같은 예수님과 만나기를 바란다”며 성도들을 초대했다.

/ 정현주 기자

산마루교회 설악여행 참가자 모집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산마루교회 청년아카데미에서 설악여행에 함께할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모집한다. 설악여행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와 함께하는 ‘영성산행프로그램’이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설악산에서 진행된다.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회비는 5만 원이다. 회비 중에서 3만원은 노숙인자립사업에 기부된다. 참가신청은 산마루서신

(www.sanletter.net)과 산마루교회(www.sanmaroo.org)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7월 1일, 7일, 15일, 22일 오후 5시에는 준비모임이 있다. 준비모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종수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피터 킵 교수(이화여대 영문학과), 조성남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가 강의한다.

문의: 02-3273-0891

2000선교본부 재능기부자 모임 개최

70명 참석, “모임 확대해 나갈 것”

2000선교본부가 지난 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재능기부자 모임을 개최했다. 사례발표와 분과별 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김홍주 목사님과 이승배 장로를 비롯한 리더십들과 재능기부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재능기부 사례발표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사례, 선교사 자녀들에게 예체능과 과학실험을 도와준 사례가 소개되었다. 분과별 모임에서는 재능기부 모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커뮤니티를 만들 것과 고등학생 MK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

한숙영 팀장은 “재능기부는 특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능기부사역은 선교사 기도편지를 제작하는 ‘ON편지 제작팀’, 이주민사역을 지원하는 ‘M미션사역지원팀’, IT사역을 돕는 ‘IT영역지원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과 성장을 돕는 ‘MK Edu-Care팀’, 차량, 숙소를 제공하는 ‘h/w팀’ 등이 있다. 재능기부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성도는 2000선교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795-9085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전, 샤이닝 글로리 9~12일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샤이닝 글로리는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이다. 매년 수많은 성도들이 2박 3일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하

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샤이닝 글로리에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9일부터 12일까지 전주비전대학교 선교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20만 원. 문의: 042-825-3642

■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 최성원 성도(이촌공동체, 주차사역팀)

“사랑하는 큰딸 예영아”

사랑하는 큰딸 예영아. 방긋방긋 웃던 아이가 어느새 대학에 입학하더니 곧 1학기를 마치는구나. 대학생활과 함께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너를 보며 아빠는 문득 ‘유모차 사고’가 떠올랐단다. 네가 한참 어릴 때였어. 외출하려고 네 동생을 유모차에 태우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네가 유모차를 밀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단다. 결국 유모차가 계단으로 굴렀지. 다행히 네 동생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아빠와 엄마가 유모차 미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따라해 보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아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유모차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지. 그때의 경험을 너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너는 사회라는 유모차를 밀어야 해. 사회는 학교와 많이 다르단다. 헤쳐 나가야 할 장애물이 훨씬 많아. 그래서 아빠는 앞으로의 삶에서 필요한 세 가지를 조언하고 싶어.

첫째는 큐티야. 큐티는 크리스천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야. 큐티는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야. 그 대화를 통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날의 일

들을 처리할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야. 둘째는 독서야. 좋은 책에는 저자의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지식과 경험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책이란단다. 책을 쓴 위대한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려고 한다면 정말 어렵겠지. 이미 죽은 작가는 만날 수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거야. 위렌 버핏과 식사 한 번 하는데 30억 원을 내야 한대. 그러나 그가 쓴 책을 정독하면 그와 식사한 것 못지않은 효과가 있어. 셋째는 운동이야.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쉽게 피로해져서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용을 들이거나 정해진 시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어. 집이나 학교에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꽤 많단다. 문제는 꾸준히 하는 것이야.

사람들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부터 어떤 그룹으로 들어가게 돼. 아빠는 예영이가 속한 그룹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세 가지가 중요한 열쇠가 될 거야. 매일 꾸준히 세 가지 열쇠를 마음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 SNS공동체 수련회 간증



/ 김동한 형제(SNS공동체)

세 가지 선물

대학청년부 SNS공동체 수련회 ‘세상에 도전하다’에 가기 전까지 나에게에는 소망이 없었다. 여러 곳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만 커져 갔다.

하나님은 SNS공동체 수련회에서 나를 만져주셨다. 나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선물은 내 안에 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수련회 첫날 사무엘상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상황은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보게 했다.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골리앗 같은 영적 헤드핀을 찾아 쓰러뜨릴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 깊이 와 닿았다. 내 안에 있던 영적인 헤드핀은 부끄럽지만 음란이었다. 음란이라는 골리앗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골리앗과의 영적전쟁이 시작됐음을 느꼈다. 내 안에 있던 빨간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했음을 확신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을 인정한 것이다. 나

는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다. 내가 회심 했던 계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성령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역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이유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과의 만남을 구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다.

세 번째 선물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다. 김용의 선교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함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고백이 내 마음을 울렸다. 또한 김하중 장로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여쭙보고 결정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 이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내 인생의 결정 중에 절반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분의 삶의 태도를 보며 나의 자유의지마저 주님께 순복해 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은하 선교사(영국)

기도를 부탁한다

화요성경공부모임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랍어도 못하는 내가 성경공부모임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가우뚱했다. 믿음으로 시작한 나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언어의 장벽으로 사람들이 떠나지는 않을지, 3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오래갈 수 있을지 걱정되고 스트레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이며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걱정했던 G는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부인 I에게 그날 배운 것을 전하는 듯하다. 얼마 전 J가 나에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라고 묻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질문했다. 내 대답을 들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G의 딸인 L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며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 G는 노숙자사역에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G와 G의 가족들을 통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를 본다. 중동 F국 출신 N도 이번 공부로 많이 변화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왜 구약을 배우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고 어떻게든 모임에 빠지려고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성경공부에도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

1월 말부터 시작한 AM성경공부모임은 이렇게 1기모임을 마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아랍어권 사람들 4-5명이 다음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

작년 4월에 시리아에서 온 S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중동 F국과 시리아에서 온 망명자와 이민자들을 섬기고 있다. 그들은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 전쟁을 겪으면서 집과 가족들을 잃었다. 화학무기에 노출되어 평생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대량학살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를 지닌 채 살고 있다. 그나마 살아남은 가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만날 수 없다.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감당하며 약자로 살아가고 있다. 기도를 부탁한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최수호 부: 최규영 모: 박수정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있거나 믿음이 깊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시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까’하는 의심이 있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 곁을 떠났고 그와 동시에 교회와 점점 더 멀어졌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반복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내고 그로 인해 죄를 짓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 마음 속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다. 주위에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다. 아내는 연애 때부터 나와 같이 교회에 다니기를 소망하였다. 결혼을 하면서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다.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행복이 되었다. 설교도 열심히

히 듣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순모임을 하게 되었다. 자연스레 나의 믿음이 깊어졌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생이 행복해졌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세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한다. 나의 과거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아들 수호가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교회를 더욱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아들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 부부가 매주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려한다. 아들 수호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아들 수호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 아멘.

신앙에세이

권사칼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부본부장)

요즘 청년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가운데 니트족과 율로족이라는 표현이 있다. 니트족은 현실의 장벽 앞에 자포자기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율로족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대신 한 번뿐인 인생이니 그저 이 순간을 즐기는 것에 충실하자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일까?

첫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세상의 조건과 배경에서 나오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발견할 때 나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원의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결정과 선택이 나의 영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볼 때 오늘 이 하루를 결코 헛되게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심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영적인 준비이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준비이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까닭을 발견한다. 그것은 충성된 삶의 태도였다. 그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도망가지 않고 양을 지켰던 충성된 양치기였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실제적 준비는 지금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들어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포기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안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이겨내는 거목으로 키우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셨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청년들이 힘을 내기를 바란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가장 놀라운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최정주 권사
(이수공동체)

영혼의 작가로 알려진 켄 가이어(Ken Gire)는 그의 글에서 “음악은 때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에 평안을 주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순간에 위로를 주기도 한다”고 했다. 음악뿐 아니라 많은 예술 작품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안과 위로는 주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술작품 속에서 찾아볼 때 더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경험을 할 때가 많다.

피아노를 전공한 나는 학생들에게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다. 가르치는 일은 많은 보람이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았다. 6년 전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미술작품들을 감상하게 되었다. 미술작품 중에서 특히 성화들은 마치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깊은 묵상의 글로 유명한 헨리 나우웬(Henri Nouwen)도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며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받은 감동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다.

평생을 음악과 함께 하던 내 삶에 찾아온 그림들은 꼭 예수님이 내 영혼을 흔드시는 것 같은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요즈음의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으로 쉽게 전달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성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비록 성화가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예술을 통한 분명한 치유의 과정을 느낀다. 주님이 내게 주

시는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내게 맞는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1669)을 감상하며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그린 이 그림은 세상의 향락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어쩌면 인생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통곡하는 렘브란트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이 그림을 대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만난 아들의 통곡의 장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얼마나 편하고 아늑한 품인가? 그림 속 탕자처럼 나는 힘없이 기대어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느꼈다. 무릎 꿇은 아들의 해진 옷과 더러운 발바닥은 그의 고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때로는 눈앞의 욕심으로, 때로는 삶의 연속되는 긴장 때문에 아버지께 똑바로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외면하고 눌러있던 남루한 내 영혼의 모습이었다. 나아갈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언제나 갈등하고 용기 없는 나의 상태였다.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이다. 엘가의 소품 ‘사랑의 인사’는 사랑하는 자신의 부인에게 헌정한 곡이다.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아버지의 품속에 기대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나는 계속 음악과 미술작품을 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예술로 하는 큐티가 될 것이다. 늘 감동이 가득한 시간들이 내 삶에 채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예술산책을 나간다.

장로칼럼

차세대의 여름캠프를 시작하면서

수영장에서 물장구치는 아이들의 얼굴이 마냥 행복하다.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캠프파이어를 하기도 한다. 7월초부터 차세대의 여름캠프와 아웃리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름캠프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다. 선생님들은 한 달 전부터 알찬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어드벤처’라는 교사강습회로 준비한다. 여름캠프는 차세대 연중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다.

여름캠프를 시작하면서 온누리교회의 차세대 양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차세대의 현안으로는 예배 공간 부족과 교사부족이 오랫동안 이어져왔지만 공간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교사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아래는 서빙고 캠퍼스의 2017년 상반기 부서별 교사현황이다.

부서	학생 수	총 교사 수 (담임 수)	총 교사 1인당 학생 수	담임 1인당 학생 수
예꿈(영,유아,유치부)	977	329(152)	2.9	6.4
꿈땅 유년부(1, 2학년)	495	99(73)	5	6.7
꿈땅 초등부(3, 4학년)	457	82(55)	5.5	8.3
꿈땅 소년부(5, 6학년)	502	60(48)	8.3	10.4
중등부	529	65(61)	8.1	8.6
고등부	470	88(70)	5.4	6.7

* 비담임 교사는 총무, 찬양 등 자원인력으로 섬기는 인원.

담임교사 1인당 학생수가 5명을 넘으면 그룹활동(분반공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교사부족은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심각한 형편이다. 특히 꿈땅 고학년부터 중등부가 심각하다.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민한 시기에 학원수업과 자율학습 등으로 힘든 아이들을 교회마저 돌보지 않는다면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또 유치부나 꿈땅의 경우에는 교사 연령이 전체적으로 낮아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 중에 권사님과 집사님이 별로 없다.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사들은 부서마다 중심을 잡고 멘토 역할을 해줄 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예전부터 유치부 등에는 권사님 등이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헌금기도를 해주는 관례가 있어 왔는데, 요즘에는 차세대 부서를 섬기려는 권사님을 모시기 어렵다고 한다. 차세대를 섬기는 장로들도 많이 부족하다. 예컨대 서빙고 캠퍼스에는 예배시간대 별로 나눠진 차세대 부서가 총 21개가 있는데 장로님은 12명뿐이다.

최근 우리 교회 미래성장위원회의 차세대에 관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기독교 인구 중 80%가 14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한다. 기독교인 중 21세 이후 전도 등으로 회심한 경우는 23%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어린 시절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인을 전도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 스스로 기독교인

이라고 인정하는 비율은 4~5% 정도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지금 차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선교대상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한국 기독교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미래의 통일시대를 살아갈 차세대의 영적양육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차세대에는 집사님들의 자녀가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손자손녀가 있다. 우리는 그들이 열심히 학업을 성취하고 취업하여 아름다운 인생항로를 시작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나의 평생직이다”는 말로 유명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고향 조지아 주의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로 섬겼다고 한다.

금년에도 차세대 부서의 많은 선생님들이 여름캠프를 섬기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안다. 차세대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여름캠프를 위해, 차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사로, 코치로, 담당 장로로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길수 장로
(차세대본부 대표장로)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불순종의 저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런 삶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네가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5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고, 대적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 수치스러운 이름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대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국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소나기처럼 내렸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다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경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가득한 진노의 먹구름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이 진노의 먹구름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난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있었습니까. 끔찍한 악이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종교, 영적인 영역에 가득한 악의 결과를 담당하셨습니다.

악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신 해결책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골 2:14-15).

여러분, 채무증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악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의 소나기를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속해 살아감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분의 몸이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악을 처리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권력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 시켰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의 몸으로 짊어지셨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이미 처리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의 집이 심판에서 넘어가듯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저주가 넘어가는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악과 저주가 온전히 제거된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악이 없는 세상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곳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는 헬라어로 ‘후 토피오스’, 그런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세상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

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열두 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계 22:1-3).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신명기 28장에서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역사 속에서 저주들이 쏟아졌습니다. 저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날 길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해결되었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장 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없는 곳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부활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은 저주가 없는 세상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배반이 없다는 것이고,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처리된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악의 저주와 권세가 사라진 곳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은 이들, 영화롭게 된 이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분인 동시에 악을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끝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에 대한 모든 저주를 처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악이 있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저주하며, 악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악에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제안합니다

온누리교회에는 매주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13만 리터의 음식물 쓰레기와 23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한다(서빙고 기준).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2천만 원, 생활쓰레기 폐기 비용에는 약 6천만 원이 소요된다.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양과 많은 비용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크다. 음식과 물건이 필요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이다.

성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처리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원을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모임, 주일학교 후 발생하는 쓰레기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손쉽게 분리할 수 있다. 교회 식당은 짧은 시간에 많은 성도들에게 배식을 해야함으로 자율 배식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매년 13만 리터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할 수도 없다. 최소량을 배식하고, 부족한 반찬은 자율배식대를 활용하는 방법, 전월에 발생한 잔반량과 처리비용을 배식을 기다리는 동안 볼 수 있게 공지하는 방법,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잔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매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는 3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분류없이 버린 쓰레기는 교회 뒤편 작업이 이뤄진다. 쓰레기 분류 작업하는 분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음식물을 분리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빙고에는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잔반통은 식당에만 설치되어 있다. 성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큰 번거로움이 있다. 각 층 쓰레기통 옆 또는 이천만 광장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일 수 천 개 이상의 종이컵이 폐기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소형 컵과, 머그컵 사이즈 중

이컵 수거통을 설치해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 종이컵 수거통 옆에 남은 음료수를 폐기할 수 있는 통도 설치되면 더 깔끔한 분리가 가능할 것이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노력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교회 곳곳에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시각적으로 재활용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설명 판의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에 나눠주는 것도 비닐봉투를 줄이는 노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을 만드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부분 중의 하나가 음식물의 잔반과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이다. 쓰레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온누리교회는 나눔장터를 통해 옷, 구두, 책,

기타 생활용품을 기증받고 판매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서빙고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해있고 매 주일 9시 예배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성도들이 기부한 옷, 신발, 가방, 책 등을 오백원부터 천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나눔장터에 방문해서 직접 기증하거나 신관 1층에 마련된 상자에 기증품을 넣어도 된다. 지난해에는 1,519만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20kg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현금이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스마트폰 앱 '수거왕'이나 기부한 물건을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기부한 만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NGO 단체 '웃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서영 성도
(사회선교부 사회책임팀)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CMN 라파티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일정: 7월 30일 안산M센터

내용: 예배, 전도지 배포 및 의료사역

모집: 의료인, 이마용, 일반성도

CMN BEE팀 여름 아웃리치 모집

일시: 8월 24일~27일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및 한림읍

월령교회

대상: 의료, 미용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김선아 010-6773-2136

*특히 약사 부족 많은 지원을 바랍

주일7부예배 카이모모집

시간: 매 주 주일 오후 7:30~10:30

장소: 본당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목요선교집회 싱어모집

시간: 매 주 목요일 오후 5:30~9:15

장소: 비전홀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금요회복예배 싱어모집

시간: 매 주 금요일 오후 6:00~8:30

장소: 본당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스타트리)

돌봄교사 채용공고

분야: 돌봄교사(다문화 및 외국인 초중등

생, 학습 및 생활지도)

자격: 전공, 성별무관(교육전공자, 사회복지

지사, 보육교사 등 우대)

모집: 7월 5일

접수: onnurim911@gmail.com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경

력증명서 각 1부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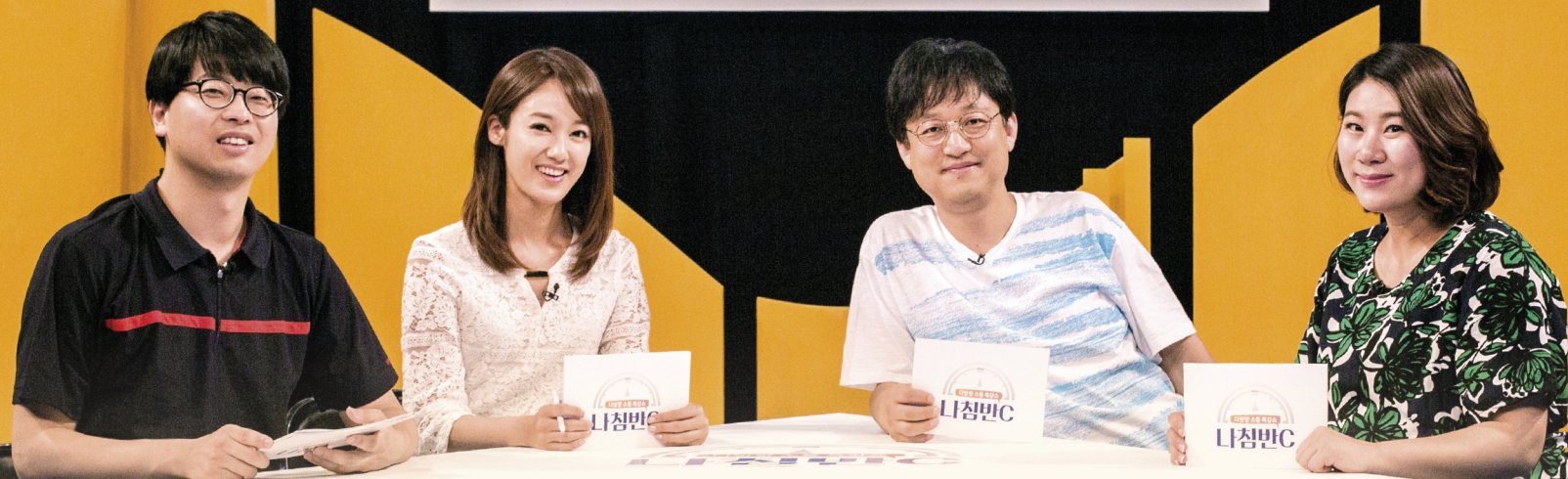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CGNTV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강의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크리스천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갑니다

7월 방송 안내



7월 7일 (금)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세우는 방법>
김남국 목사 (주내침교회/마커스 미니스트리)

7월 14일 (금)

<크리스천의 재정원칙>
데이비드 서 교수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저자)

7월 21일 (금)

<거룩한 부담감>
손인경 단장 (온누리사랑채버)

7월 28일 (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요셉 작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MC 최운영 아나운서

패널 임우현 목사, 나도움 목사, 정지민 개그우먼

페이스북 라이브 일정은 나침반C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나침반C

검색

www.facebook.com/cgntvcompassc